

Press Release

대안공간 루프, <민예은 개인전: 예측할 수 없는 투명함> 개최

**오프닝: 6월 19일(수) PM 6:00 / 대안공간 루프**



**2019년 대안공간 루프 전시작가 공모 선정작가, 민예은 개인전 개최!**  
**문화와 언어의 혼성에서 비롯된 '생각의 혼혈'을 시간과 공간으로 변형**  
**수학적이면서도 은유적인 방식으로 '집'이라는 거주 공간을 재구성한 민예은의 개인전 <예측할 수 없는 투명함>**

대안공간 루프는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민예은 개인전: 예측할 수 없는 투명함>을 개최한다. '2019년 대안공간 루프 전시작가 공모 선정작가'인 민예은은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이질적 문화에서 오는 모순, 불편함, 분산, 간섭 등의 개념을 설치 작업으로 풀어낸다. 작가는 집이라는 거주 공간의 개념을 확장하여 4차원의 관계로 변형시킨다. 벽과 바닥이 없이 천장으로 이뤄진 공간의 조각들을 전시장의 천장에 배치한다. 작가는 일상의 평범한 오브제를 사용하여 수학적이면서도 은유적인 방식으로 전시 공간을 재구성한다.

작가 민예은은 1986년생으로 프랑스 클레르몽 메트로폴 미술대학교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마쳤다. <비치볼 하우스, 갤러리 644, 서울, 2018>, <Sens Dessus Dessous,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파리, 2015> 등 3회의 개인전과 <이동하는 예술가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2018>, <De la nature des liens, Cabane Georgina, 마르세유>, 2017>, <있다, 있다, 있다, 천안 예술의 전당, 2017>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트라이앵글 예술협회 레지던시, 뉴욕, 2019>,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2018>, <시테 국제 레지던시, 2015> 등의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전시는 서교동에 위치한 대안공간 루프에서 진행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부터 오후 7시이며, 입장료는 없다.

Press Release

**주요 작품 이미지 및 작가노트**

라비하마하마hyun추추happyj33아토마우스에뿐수기제트블랙병뚱깡...

작품 <라비하마하마hyun추추happyj33아토마우스에뿐수기제트블랙병뚱깡(이하 '라비하마하...')>는 누군가 사용한 물건들을 모으면서 SNS 등을 통해 접촉한 사람의 인터넷 아이디를 나열한 것이다. 성별, 나이, 구성원 등 특정 인물(들)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보는 사람의 경험과 추측으로 매 번 다르게 풀이되는 가상의 공간 구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입하고 사용한 물건을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아이디를 띄어쓰지 않고 늘어놓아 암호나 난수처럼 보이는 한글, 숫자, 알파벳의 조합은 어떠한 개인정보도 드러내지 않고 1:1 대응일지 1:다수일지조차 알 수 없다. (작가 노트 中)



라비하마하마hyun추추happyj33아토마우스에뿐수기제트블랙병뚱깡...,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9

삭

달이 아예 뜨지 않거나 거의 뜨지 않는 밤이나 그 때의 달을 '삭'이라고 부른다. 지구의 지름을 1이라고 했을 때 달은 약 0.27, 태양은 109 쯤 된다. 태양의 지름은 달의 지름보다 약 400배 크지만 달보다 400배 정도 지구에서 멀리 있어 달과 태양의 겹보기 직경은 비슷하다. <삭>은 물리적인 거리를 무시했을 때 태양과 달이 겹쳐지면서 생기는 달의 모양을 만들었다. (작가 노트 中)



삭, 강화유리, 클램프, 비닐, 페인트, 합판, 가변크기, 2019

**예측할 수 없는 투명함Unpredictable invisibility**

이선미, 대안공간 루프 큐레이터

민예은은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이질적 문화에서 오는 모순, 불편함, 분산, 간섭 등의 개념을 설치 작업으로 풀이한다. 프랑스에서 오랜 시간 유학생살을 경험한 작가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오는 현대인들의 불편함과 부조화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어디에도 진정으로 소속되지 못하는 현대인은 극적인 소외를 경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지를 다해 소속되기를 거부한다. 경계인으로서의 현대인은 공동체적 정주와 개인, 소속과 소외 사이에서 갈등하고 배회한다.

작가는 개인의 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문화적 이질감과 그로 인한 '혼성성'에 주목한다. 언어와 문화적 작용에 의한 사고의 혼성은 작가의 주된 주제인 '생각의 혼혈'이라는 큰 틀에서 재해석된다. 공간, 시간, 언어, 관계, 재료, 물질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개체가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면서 위계질서가 아닌 수평한 구조를 형성한다.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모호한, 우연한 관계와 변화들은 혼성화를 통해 사회적 언어와 적절한 문화적 공유 구역을 생성하여 기존의 사회적 프레임을 흐릿하게 만든다. 작가가 만들어낸 새로운 구역은 사회가 정의 내린 국가, 인종, 민족, 규칙, 의무에서 벗어나 안과 밖이 바뀐듯한 모호한 형태로 제시된다.

개인전 《예측할 수 없는 투명함Unpredictable invisibility》은 문화적 개체들이 서로 뒤섞이는 혼혈 현상의 진행 과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혼혈의 형태는 오브제들의 뒤섞임을 통해 과정으로 보여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간과 시간에 주목하여 달, 집의 안과 밖, 유골함 등과 같은 특정한 오브제가 갖는 의미와 형태를 놀이한다.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각각의 개체는 분할되고 재생산되어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관계로 나타난다.

작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시계, 조명, 가구 등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개인의 물건들을 수집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된 물건들은 익명으로 나열되어 가상의 공간을 만든다. 작품 <라비하마하마hyun추추happyj33아토마우스에뽀수기제트블랙병똥깡...>에서 작가는 집이라는 거주 공간의 개념을 확장하여 4차원의 관계로 변형시킨다. 이를 다시 해체하여 벽과 바닥이 없이 천장으로 이뤄진 공간의 조각들을 전시장의 천장에 배치한다. 이 조각들에는 집의 천장임을 암시하는 벽지, 조명 등이 매달려 있고, 그 안은 수집된 물건들로 채워진다. 마치 암호처럼 읽히는 작품의 제목은 물건의 주인들이 커뮤니티에서 사용했던 인터넷 아이디의 조합이다.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경험으로 재생산된 공유 구역은 관람객에 의해 조명이 켜고 꺼지며 모두가 뒤섞이는 혼성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삭>은 지구와 달, 해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시간의 흐름은 시각적으로 풀어낸 설치 작업이다.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 일직선을 이루는 때를 뜻하는 '삭'은 물리적인 크기가 아닌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시각 현상이다. 작가는 태양과 달이 겹쳐지면서 일시적으로 관측되는 달의 형태를 압축된 비닐로 재현한다. 폭발할 듯 압축되어 있는 4개의 <삭>은 시간, 거리, 공간의 셈이 아닌 은유적 계산에 빚대어 관계의 상호 작용을 이야기한다.

Press Release

유희함에서 보여지는 죽음과 장례의 과정, 삶의 이야기들을 역설적으로 기록한 <트랜스-마이그레이션 Trans-migration>, 가구를 갈아내서 생긴 가루가 흩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단일슬릿> 등 민예은은 다양한 소재로 제도화되지 않은 가상의 공간을 설계한다. 일상의 평범한 오브제를 활용한 작가의 특별한 공간은 수학적이면서도 은유적인 방식으로 재조립되어 작가만의 개성 있는 공간으로 연출된다. 규제도, 의무도 없이 뒤섞인 혼성의 공간은 흐릿하고 모호하지만 예술 언어로 재탄생된 적절한 문화적 공유 지점으로 화합된다.



Ye Eun Min Solo Exhibition: Unpredictable invisibility  
Opening Reception: 6pm June 19th(Wed), 2019  
June 19th - July 21st, 2019  
Alternative Space LOOP  
민예은 개인전: 예측할 수 없는 투명함  
오프닝: 2019년 6월 19일(수) 6:00PM  
2019년 6월 19일 - 7월 21일  
대안공간 루프

2019년 6월 19일 오프닝

### 민예은 개인전: 예측할 수 없는 투명함

전시기간: 2019년 6월 19일(수) - 7월 21일(일)

참여작가: 민예은 (2019 대안공간 루프 전시작가 공모 선정작가)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

관람시간: 10:00AM - 7:00PM

주최/주관: 대안공간 루프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Press Release

\*고용량 이미지는 Dropbox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링크)

<https://www.dropbox.com/sh/sgwpmqslxc625g8/AACV8RpqCDiflEnmYgljm2oja?dl=0>

사진설명: <민예은 개인전: 예측할 수 없는 투명함> 전시작품 이미지

이미지 제공: 대안공간 루프

#### **관련링크**

대안공간 루프: [www.altspaceloop.com](http://www.altspaceloop.com)

#### **언론문의처**

대안공간 루프 전시팀

이선미 큐레이터 / 피지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02-3141-1377

[gallery.loop.seoul@gmail.com](mailto:gallery.loop.seoul@gmail.com)